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초춘춘 55 안녕 우리말	00 발칙하게 고고(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축제
⑫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매거진 2580 (재)	00 SBS 뉴스12 50 닥터365
①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00 구라기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스페셜	00 KBC 열린토론회(재)
②		00 제96회 전국 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0 동물가족 체험기 외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③	00 직인직설	55 튜튼생활채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여 40 문화사책	00 SBS 뉴스 10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④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유치원 30 아욱정PD의 요리인류 기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⑤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편의라이브 프리즘스톤
⑥		00 6시 내고향 55 400회 특집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015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⑦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⑧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휴학〉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⑪	00 밀착토크 통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국제공동제작 아시안 피치(‘벵글라데시’)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어부의 만찬	15 힐링캠프 500인
⑫	30 충격 실화극 씨인(재)	35 해외걸작 드라마 〈닥터 후〉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실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생활보장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8:55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4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05:40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6:30 코코코 다코	20:40 다큐 오늘
0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엉뚱방 유지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기울의 전설, 캐나다 동부〉
08:00 엉뚱방 유지원 1	13:05 지식제네e	17:45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08:10 Why 최고다 호기심딱지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1	〈진주는 축제 중〉
08:20 엉뚱방 유지원 2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5 케니멀	21:50 EBS 다큐프라임
08:30 두다디쿵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2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2	〈어머님의 강 매콤〉
08:40 엉뚱방 유지원 3	14:00 미술탐험대	18:25 두키탐험대	22:45 달라졌어요
08:45 코코코 다코	14: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4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3	23: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발명이 팡팡	24:05 지식제네e

EBS플러스1		EBS플러스 2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독해〉	07:0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국어 4-2〉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국어A〉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2〉
01:40 " 〈문학-알파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8:30 한경 TESAT 시험대비강좌	16:50 " 〈국어 6-2〉
02:30 " 〈미적분Ⅱ〉	15:40 " 〈미적분Ⅱ(재)〉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9:10 TV중학	〈국어Ⅱ(1)2〉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Ⅱ〉	17:20 " 평가문제 〈미적분Ⅱ(재)〉	09:50 " 〈수학Ⅰ(상)〉	18:00 TV중학 〈국어 5.6〉
05:00 뉴탐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10:30 " 〈역사 1〉	18:40 " 〈수학3(상)〉
06:00 " 〈생명과학〉	19:10 " 〈영어〉	11:10 " 〈국어3(3)4〉	19:20 필독중학 세계사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스타강사 특강	11:50 "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능	12:30 실천취업가이드	20:50 EBS 기획시리즈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09:20 " 〈심주석의 수학〉	21:40 " 〈문학A형〉(재)	13:10 등업신공	22:00 등업신공 〈과학 2〉
10:1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영어〉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50 " 〈과학 1(상)〉	22:40 " 〈수학3〉
11:00 " 〈수학A〉	23:05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종합〉	14:30 " 〈수학2(상)〉	23:20 필독 중학 〈사회1-2〉
12:15 올림포스 〈국어Ⅱ-알파개념〉(재)	23:55 지식제네e	15:20 만점왕 〈국어 3-2〉	24:00 경기초 중학 〈수학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 (음 9월 7일 戊辰)	
	4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60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함께하는 찾아를 것이다. 72년생 일만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쓰자. 84년생 조금만 더 진행하다 보면 바람직한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5, 77		42년생 방향 설정을 잘 해야만 참다운 결과를 얻으리라. 54년생 마음에는 들었지만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66년생 전방위적이고 완벽한 방어책이 절실하다. 78년생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7, 19
	49년생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61년생 필수적인 것을 미리 챙겨두자. 73년생 감당하기 힘들면 부담할 이유가 없다. 85년생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85, 02		43년생 신중하 뒤 명쾌하게 실행해야 말씀이 없다. 55년생 투명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67년생 초기 상황을 무시하기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79년생 참신한 변화의 추구가 생길이다. 행운의 숫자 : 20, 27
	38년생 계획 수립으로 무척 부산할 때다. 50년생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62년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자. 74년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86년생 변화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5, 42		44년생 예정대로 진행시키면 무탈하리라. 56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68년생 진행하는 것에 자질이 벗어날 수도 있겠다. 80년생 활력을 띠면서 연쇄적인 효과가 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09
	39년생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51년생 제어할 수 있어 아만 한다. 63년생 새로운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다. 75년생 진척이 있을 것이다. 87년생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4, 45		45년생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해 답답하겠다. 57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에 승부를 걸자. 69년생 전문가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81년생 기사화생하는 기쁨이 매우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37
	40년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전무후무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히 잡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64년생 별도의 관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76년생 개별적인 고찰이 바른 판단을 낳으리라. 행운의 숫자 : 33, 64		46년생 파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맹점이 보인다. 58년생 방심한다면 호기가 악재로 변하리라. 70년생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나 바꾸면 부담스러움을 면치 못한다. 82년생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4, 71
	41년생 커다란 구도에서 파악하는 것이 옳다. 53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5년생 알면서도 모순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이 보인다. 77년생 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재도전 하자. 행운의 숫자 : 58, 46		47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았지만 속도감도 중요하다. 59년생 깔끔하게 처리될 것이니 마음 폭 놓아도 된다. 71년생 중재당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다. 83년생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72, 8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석 달을 촬영하는데 거의 두 달가량 미친 듯이 밤새웠어요. 차로 이동을 하면서 링거를 맞고, ‘일찍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배우 주원이 지난 12일 방송된 SBS TV ‘힐링캠프’에 나와서 한 말이다. 미니시리즈 드라마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시청률 20%를 넘겼던 화제작 SBS TV ‘육룡이 나르샤’의 타이틀 롤을 맡은 주원은 촬영 당시를 회고하며 울적했다.

한국 드라마의 이른바 ‘생방송 촬영’ 시스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원이 이런 발언을 하자 한국 드라마의 비합리적이고 살인적인 촬영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방송 사고가 나도, 배우가 쓰러져도 ‘생방송 촬영’으로 결국 방송 사고가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이어졌다.

지난 2월 화제 속에 종영한 SBS TV ‘편지’는 마지막회에서 화면 정지 등 세 차례 방송 사고가 났다. 마지막회의 완성된 대본이 방송 이를 전해야 나왔고, 촬영은 방송 몇 시간 전해야 끝이 났으며, 그 때문에 방송 시간 전 완성된 테이프를 넘기지 못하고 아홉 개로 쪼갠 편지본을 하나씩 순서대로 틀어야 했다. 그 결과 가장 관심이 쏠린 마지막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방송되고 말았다.

그래도 이 드라마는 ‘명품’ 드라마로 기억되고 회자된다. 국내에서 ‘생방송 드라마’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한국드라마를 지탱하는 방송 편성과 시청자 반응 ‘생방송 드라마’가 개선되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방송사 편성과 시청자 반응이다.

드라마는 일단 방송을 타야 하는데, 방송사의 드라마 라인업이 대개 늦게 결정되면서 제작 스케줄이 부랴부랴 잡힌다. 심할 경우에는 방송을 한달 앞두고 촬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전제작을 해 놓고 편성을 기다리기에겐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제작을 해놓았는데 편성이 안 돼버리거나 너무 늦게 되면 드라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시청자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다. 시청자들은 드라

마가 전개돼 가는 과정에 개입하기를 원한다. 실제로 많은 드라마들이 시청자의 반응을 보며 스토리를 수정하거나 캐릭터의 비중을 조절하며 시청률을 관리해왔다.

방송가에서는 이처럼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만드는 발 빠른 제작시스템이 오늘날 한류 드라마를 만든 힘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방송이 되는 동안 호흡이 큰 부분은 더 크게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버리면서 드라마를 만들어간 것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류 드라마를 만들어낸 비결이라는 해석이다.

사전 제작 드라마들이 지금껏 실패를 거듭해온 것도 ‘생방송 드라마’를 이어지게 했다. 앞서 ‘버디버디’ ‘탐나는 도다’ 등 사전 제작 드라마들이 선보였지만 만들어진 지 몇년 후에 방송되면서 시청자의 외면을 받았다.

◇ 차이나머니, 한류 드라마 체질 개선하나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생방송 드라마’ 체제에 최근 변화가 일고 있다. 차이나머니 때문이다.

경색된 일본 시장 대신 한류 드라마의 큰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한류 드라마에 대해 사전 검열에 나서면서, 중국 시장을 노린 드라마들이 속속 사전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송되면 곧 중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중국으로 제값을 받고 드라마를 수출하려면 한국과 중국 동시 방송만이 답이다.

방송 전 다 만들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2~3개월씩 걸리는 중국 심의까지 통과한 후에야 한중 동시 방송이 가능한 상황이 다 보니 중국 시장을 겨냥한 드라마는 사전 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영애의 10년 만의 복귀작인 30부작 드라마 ‘사임당, 더 히스토리’는 지난 8월 초 촬영을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방송은 내년 9월이나 돼야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홍콩 미디어그룹이 100억 원을 투자하고, SBS TV가 내년 편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사임당, 더 히스토리’의 제작사 그룹에이트는 “사전제작으로 시청자의 실시간 반응은 포기해야 하지만, 대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육룡이 나르샤’ 길선미와 길태미로 1인 2역한 박혁권.

“길태미는 난해한 인물 ... 윤이 좋았죠”

박혁권, SBS ‘육룡이 나르샤’ 1인2역 화제

“청잔해주시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육을 안 먹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육 안 먹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배우 박혁권(44·사진)이 SBS TV ‘육룡이 나르샤’에서 펼치는 1인2역으로 10월의 시작과 더불어 방송가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다. 불과 4회 방송됐을 뿐인데 박혁권이 장출한 길태미와 길선미의 1인2역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여말선초, 부패한 권력의 경박한 갑잡이 하수인 길태미와 초야의 진중한 무림고수인 그의 쌍둥이 형 길선미의 1인2역을 오가는 박혁권을 최근 전화로 인터뷰했다.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운대가 잘 맞은 것 같다. 길태미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역할이라 정말 부담이 컸고 자신이 없었다. 5일째 촬영하던 날 PD님한테 그만뒀어야겠다고 말해야 하나 정말 고민했다. 이렇게 자신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기는니 지금이라도 빠져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처음에 아예 못한다고 하는 게 처리리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5일 지나니 이젠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인 2역은 처음에는 작가들도 힘들어하는 캐릭터였다고 한다.

“작가님들도 머릿속에서만 그린 역할이지 길태미의 실체는 누구도 보지 못한 거였다. 느낌상으로 어땠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할 뿐이지, 너무 고민을 해서 잔뜩 위축이 됐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위축된 것은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너무 자신 없어 하니까 신경수 PD님이 많이 독려해주고 끌어주셨다. 캐릭터의 그림이 명확하게 서야 연기를 하는 편인데 그

림이 안 서니 미치겠더라. 1인2역도 처음인 데다, 길태미는 여성적이면서도 코믹한 부분도 있어야 하고, 또 객격으로서는 무게감도 있어야 하니 어려웠다. 특히 드라마 초반은 아역들이 등장하니 길태미가 재미라는 요소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해 부담스럽더라. 나는 원래 분위기를 낮추는 코미디를 하는데 길태미는 띄워 주는 코미디를 해야 해서 그것도 과연 잘하는 것인지 자신 없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작품에 적응했을까.

“길태미가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는 인물이 아니니까 일관성 없음을 일관성으로 소화하자 싶었다.(웃음) 그냥 까불 때 때는 까불고, 싸울 때는 싸우고 하는 거다. 까불다가 갑자기 정색하고 싸우면 그것 또한 얼마나 웃길까 걱정했는데 그냥 길태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로 했다. 해마다가 윤 좋게 얻어 걸린 셈이다.”

드라마에서 등장한 길태미의 춤도 화제다. “요즘 내가 술자리에서 까불 때 추는 춤을 좀더 연습해서 발전시킨 춤이다. 내 독창적인 댄스라고 할 수 있다.(웃음) 사실 대본 지문에는 엄정화의 ‘물리’ 댄스처럼 추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가져다 쓸만한 동작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개발한 춤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반응이 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다.이인겸 역 최종원에게 투정부리고 면박당하는 장면은 사실 초반에는 내가 너무 못해서 다시 찍은 장면이 꽤 된다. 내가 너무 위축돼 있어서 연기가 잘 안 풀렸다. 최종원 선배님이 잘 이끌어주셨다. 선배님과 PD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못해냈을 거다. 삼한제일 객격이라는 점은 물론 좋다. 평소 더 나이 먹기 전에 진한 액션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드라마 끝나고 제대로 된 몸으로 하는 액션 한번 해보고 싶다.”

／연합뉴스